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준공식 무더위 어르신 건강 챙긴다

진안군, 성수면 스포츠평감센터서 가져... 면민 삶의 질 향상·정주여건 개선 기대

진안군은 27일 성수면 스포츠평감센터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에는 전춘성 군수, 이우규 군부의장 및 군의원, 이한기 도의원, 김동인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손태주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사회적거리 두기 2단계를 반영한 방역조치를 반영해 참석인원을 줄이고 참석자 전원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철저하게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했다.

준공식은 손태주 추진위원장의 사업추진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사업추진 공로자들을 위한 전춘성 진안군수의 공로패 전달, 테이프커팅식과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성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지역의 중심거점인 면 소재지 기능을 지역특성에 맞게 생활편의, 지역경관개선, 문화·복지 등 기초생활서비스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총 사업비 57억원(국비 32억원, 지방비 25



진안군은 27일 성수면 스포츠평감센터에서 전춘성 군수, 이우규 군부의장 및 군의원, 이한기 도의원, 김동인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손태주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했으며 2020년에 시설물을 준공하여 성수면의 기초생활인프라 및 정주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면 소재지에 문화·복지 서비스 공급기능 향상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확충으로 스포츠평감센터 및 세대공감마당(아이놀이터), ▲지역경관개선으로 당산(아이놀이터) 센터 공간 및 소공원 조성, ▲지역역량강화로 홍보

마케팅, 공동체활성화, 주민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전춘성 군수는 "성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면소재지의 문화·복지서비스 기능 향상으로 성수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등 향후 성수면의 발전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며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손태주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성수면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무더위쉼터 방문해 운영 실태 점검

황인홍 무주군수가 관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챙겼다. 섬김 복지를 지향하는 어르신 복지정책의 차원에서다.

무주군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피해발생 우려에 따라 인명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군은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는 등 폭염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무더위쉼터 방문과 점검도 그 일환이다.

황인홍 군수는 27일 오후 무주읍 관내 오산리·요대 마을회관 등 2곳의 무더위쉼터를 관계 공무원과 함께 방문해 시설물 작동 유무, 국민행동 매뉴얼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긴급 현장점검을 펼쳤다.

방방기 가동상태·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 등 쉼터 운영 실태를 점검했으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수칙 등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어 "점심 식사 이후에는 경로당에서 건강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 달라"며 "꼭 필요한 농작업은 이른 아침에 2명 이상이 함께 해주시길 당부 드린

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경로당과 행정복지센터, 복지회관 등에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를 갖춘 무더위쉼터 8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에는 선풍기와 비상구급품을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재난위기 '경계' 발령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원 응급실을 통한 운영진환자 발생현황 모니터링 등 '생활밀착형 폭염대책'을 추진 중이다.

무더위쉼터(마을경로당 37개소)에 대한 냉방기 점검과 수리를 완료했다. 또 폭염취약계층인 독거 어르신과 건강민성 질환자를 위해 재난도우미 등을 활용해 일일건강을 점검하고 읍·면을 통해 쿨방석·쿨스카프·생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8월까지 무주읍 읍내 시내 권 도로에 살수차를 동원해 도로열기를 식히고, 군민들의 온열 질환 예방과 체감온도 저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 무주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정은)는 이날 하절기 폭염 여름나기를 위해 관내 독거노인 57구를 대상으로 여름 이불세트를 전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국가예산확보 총력

기획재정부 찾아 사업 당위성 설명·재정 지원 건의

전춘성 진안군수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군수는 지난 26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최상대 예산실장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인 ▲약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전통자원 복원사업

을 위한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타당성과 당위성을 피력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약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약용작물을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국내 유일의 진안홍삼연구소, 홍삼·한방특구 기반을 활용한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농업소득분야 대표 지역균형 뉴딜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

업이다.

다음으로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이다. 곤충 사육 능력이 집중된 진안에 공동집합장 및 공동가공센터 설치로 일괄수매·공동가공유통을 통한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이를 위해 군에서는 지난 1월부터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방안을 기획하였고, 농진청·전라북도 및 농식품부 관련 부서와 협의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통자원 복원사업은 어업공동체 주도로 역사문화적 가치 등을 보유한 토속어종을 발굴하고, 토속어종과 지역 생태환경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자원조성 계획을 마련하여, 내수면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수산자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어촌지역의 소득창출과 더불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전춘성 군수는 "국가 예산을 확보해 우리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나봄리조트, 복합레저스포츠 단지 조성 투자협약

장수군은 나봄리조트(주)대표 서호진과 장수군청에서 천천면 복합레저스포츠 단지 조성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수군청 문화체육관광과장, 나봄리조트(주) 서호진 대표이사 등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협약에는 승마장 관련시설 정비 및 이전설치, 관광휴양 시설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나봄리조트(주)는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일원에 약 73만㎡, 총 400억 원을

투자해 복합레저스포츠 단지를 조성, 가족과 함께 즐기는 건강·레저·휴양 공간을 창출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장수군에 약 55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호진 대표이사는 "장수군의 차별화된 스포츠 인프라와 장수군의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에 힘입어 투자하게 됐다"며 "장수군과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생태모험공원 주민설명회

무주군이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생태 체험형 관광 랜드마크가 될 무주생태모험 조성 사업에 대한 본격 시작을 알렸다.

무주군이 27일 오후 무주생태모험공원 실시설계를 앞두고 전문문화의집에서 가진 주민설명회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공감대 형성과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주민의견을 대폭 담아 주민친화형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취지다.

주민설명회는 무주읍 지역주민을 비롯해 이형재 관광진흥과장, 관계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 주민 공감대 형성과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무주생태모험공원조성 기반 및 실시설계(안)와 관련 사업계획(안) 및 실시설계(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주민의견 반영 내용 등을 설명했다. 군은 이날 주민설명회 결과 주민의견을 검토한 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워크숍 가져

진안군은 지난 26일 진안고원치유숲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진안군 정책자문위원, 전춘성 군수, 국·실·과·소장, 연구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열렸다.

워크숍에서는 군정주요업무에 대해 토론회하는 시간과 진안군 중장기 및 미래전략 계획수립 운영 중간보고를 가진 후 질의응답 등을 통해 활발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 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정책자문 위원들은 인구 감소 위기극복을 위해 진안군에서 펼쳐야 하는 정책으로 장승초등학교 인근 주거문제 해결방안, 수종 갱신을 통한 힐링·치유공간 확대, 용담댐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군 정책자문위원회는 군민 주도형 상황식 정책 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로서 지난 6월에 위촉식과 행정복지·농촌경제·안전환경 3개의 분과 20명으로 구성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취약계층 폭염대비 물품 지원·시설 점검

장수군은 취약계층 폭염대비를 위해 장수군 7개 읍·면의 실내·야외 무더위쉼터, 경로당 등을 방문해 폭염대비 물품 지원 및 폭염시설 점검에 나섰다.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속되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했으며, 차상위계층에 쿨토시, 무더위쉼터 288곳에 생수를 지원해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더위쉼터로 활용하고 있는 관내 경로당 운영 실태를 살피고, 냉방시스템 점검, 코로나19 방역 수칙 홍보 등도 함께 진행했다.

군은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내달 14일까지 살수차를 활용한 도로 물 뿌리기도 시행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